

개혁기 동유럽에서의 여성노동: 체코에서의 변화*

진승권

이화여대 사회학과 조교수

본 논문에서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의 여성노동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고 체코에서 개혁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여성노동의 변화에 관해 취업구조, 임금 및 실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취업구조면에서는 짧은 관찰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력이 상당한 정도 부문간 이동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노동력의 부문간 이동은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소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취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코에서는 과거 공산체제가 붕괴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남녀간의 수직적 수평적 노동분절 현상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직업부문에서의 남녀 노동력의 편향적 분포가 별로 변화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개혁 이후 정부의 임금자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직업부문의 평균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을 볼 때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지할 수 있었다. 실업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록 체코에서는 여성 실업자수가 다른 동구 국가들에 비하여 상당히 적기는 하지만 체코 남성에 비하면 꾸준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실업자들의 경우 남성 실업자들에 비해 장기간 실업상태에 처하는 확률이 시간이 경과될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I. 머리말

1989년 폴란드를 필두로 동유럽에서 공산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한 이후 이 지역에서는 의회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새로운 정치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국가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 위주의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려는 개혁작업이 병행되면서 동유럽 각국은 사회전반에 걸쳐서 가히 혁명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변화들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정치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언론,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 등의 분야에서도 과거의 틀을 탈피한 새로운 제도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는 지금까지 과거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사람들간의 사회적 관계가 해체되거나 변형되면서 새로운 사회계층화 과정과 더불어 사회지배구조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시장원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부터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집단과 개혁으로 인한

* 이 글은 본인이 수행한 1997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통상협력연구소 연구과제 <동구 탈사회주의의 개혁과 여성노동>의 보고서 내용 가운데 주요 부분을 논문으로 작성한 것임.

사회적 비용이나 구조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집단이 동시에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체제전환 이전에 비해 사회계층간 격차도 상당히 커지게 되었다.

동유럽에서의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 및 새로운 계층 정립 과정에서 부각되는 관심사에서 동유럽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지위변화를 배제시킬 수 없을 것이다. 공산체제가 붕괴되기 이전 동유럽 국가들은 서구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독특한 산업 및 고용구조를 지니고 있었고, 그 속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와는 여러 면에서 상이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유럽에서 개혁이 시작된 이후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정책의 추진으로 동유럽 각국의 고용구조와 노동시장의 성격이 크게 변화되었고 여성에 대한 국가정책 역시 변경되면서 과거 동구 여성이 지녔던 사회경제적 역할과 지위가 변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동유럽의 여러 국가 중에서 시장경제로의 개혁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체코를 대상으로 개혁이 시작된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여성의 고용구조, 임금 및 실업상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체코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 및 지위변화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동유럽에서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이 노동시장에 진출해 있는 여성들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의 한 단면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본론에 앞서 다음 절에서는 공산체제가 붕괴되기 이전 동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난 여성노동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동구 사회주의체제 하에서의 여성노동의 전반적 특성

소련의 불세비키 정부는 여성해방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법률에 최초로 반영하였다 (deSilva, 1993: 302). 특히 1977년에 개정된 소련연방공화국의 헌법 35조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련연방공화국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그러한 권리는 여성의 교육, 전문적 훈련, 고용, 임금, 승진, 사회 정치 문화활동에서 남성과 똑같은 기회부여, 노동과 의료 부문에서의 여성에 대한 특별보장과 혜택,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노동기회 부여, 임신부나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유급휴가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법적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보장된다 (deSilva, 1993: 302).

여성에 대한 소련의 이러한 정책기조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공산화된 동유럽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이 지역의 공산당 정부는 여성해방과 평등이념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게 되었고, 그 결과 동유럽의 국가사회주의체제는 비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여성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¹⁾ 비록 여성과 관련한 국가의 공약과 그

1)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동구의 공산정부들이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을 추구한 것은 단

것의 구체적 실천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지만 사회주의체제가 지속된 기간을 통해 동유럽에서는 실제로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육아 등에서 여성이 처한 여건도 크게 변모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유형과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에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²⁾ 우선 동유럽 국가들이 나타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전체노동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동독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도가 가장 높아서 1980년대말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여성 중에서 83.2%의 여성이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 방면에서 헝가리는 70.1%, 다른 동구 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했던 폴란드도 65.0%를 기록하고 있다 (Einhorn, 1993: 266).³⁾ 그리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등 발칸반도에 속한 동구 국가들에서도 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여성 중 70% 이상이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Fong and Paul, 1994: 218-219; Wolchik, 1995: 152).⁴⁾

이에 반해 서유럽의 경우, 80.5%라는 높은 비율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스웨덴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에서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1> 참조). 대다수 서방 국가들에서 196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65% 내외의 여성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이고, 프랑스, 서독, 일본에서는 그 수치가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동유럽에서의 여성노동인구에 관한 통계가 상근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면 서유럽의 여성노동인구는 비상근직의 여성까지 포함한 것을 감안한다면 동유럽의 경제에서 여성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

순히 사회주의의 이념적 성향 때문만은 아니고 정치적 경제적 인구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하고 있다. 동구의 공산정부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통한 체제 정당성 확보, 산업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여성노동력 확보, 충분한 미래노동력 확보의 차원에서 특별한 여성정책을 시도했다는 것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2) 이와 관련한 논의들로는 Jancar(1978), Heitlinger(1979), Wolchik and Meyer (1985), Paukert (1993), Fong and Paull(1993), Wolchik(1992), Rudolph(1992), Heinen(1994) 등을 꼽을 수 있음.

3) Rudolph(1992:218)에 따르면 동독의 경우 전문교육 내지 훈련을 받고 있는 여성을 포함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91%에 육박하고 있다.

4) 특히 동구에서는 20세에서 35세의 출산기 여성도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서구와 구별되는 특징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Hubner et al.(1993) 참조.

5) 동구와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는 오히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표 1> 서방 국가들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1960-1986

국 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¹⁾				전체 노동인구에서의 여성비율		
	1960	1970	1980	1986	1970	1980	1986
미 국	42.6	50.4	61.3	66.5	36.7	41.9	43.8
캐나다	33.7	41.1	57.8	64.3	32.2	40.0	42.9
프랑스	45.4	47.5	52.5	57.2	36.6	40.1	42.7
서 독	49.2	48.1	50.0	51.4	35.9	37.8	39.0
스웨덴	50.1	60.6	75.7	80.5	39.5	45.2	47.3
영 국	46.1	53.5	61.7	63.5	36.2	40.3	42.0
일 본	60.1	55.4	54.9	57.4	39.3	38.7	39.8

자료: Sanderson (1995: 376).

註: 1) 15세부터 64세까지의 전체 여성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노동인구 비율.

또한 전체노동력에서 차지하는 여성노동력의 비중도 동유럽이 서유럽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 확인되듯이, 소련,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에서 여성노동력이 전체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여성노동력의 비중이 낮았던 폴란드와 헝가리마저도 공산정부가 붕괴되기 직전인 1988년에는 여성이 전체노동력의 45%를 넘었고, 1980년 소련과 동독의 경우는 여성노동력이 남성노동력을 일시적으로 능가하는 현상도 보였다.

<표 2> 동유럽에서의 경제활동 참여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 노동인구의 비율, 1980년대 (%)

국가명	1980	1988
소 련	51.2	49.9
동 독	50.5	49.9
폴란드	43.5	45.5
헝가리	44.8	45.8
체코슬로바키아	46.2	47.3
불가리아	48.7	50.0 ¹⁾

자료: Einhorn (1993: 266).

註: 1) 1987년도 수치.

이에 반해 서유럽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미국을 비롯한

그 차이가 점차 좁혀지게 되었다. Wolchik(1995), Hubner et al.(1993) 참조.

서유럽 국가들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지만 스웨덴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여성노동력이 전체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를 밑돌았다 (<표 1> 참조).

이와 같이 동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없애고 여성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산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동유럽 각국이 겪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Sanderson, 1995; Wolchik, 1995). 예를 들어 소련의 경우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남성 노동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여성이 동원됨으로써 여성이 다양한 직종에 광범위하게 진출하게 되었고, 동독, 폴란드, 헝가리에서도 전후복구 작업에 요구되는 노동력 보충을 위해 여성노동이 질실히 요구되었다.⁶⁾ 그리고 전후복구가 끝난 뒤에도 여성은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였는데, 특히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노동집약적 산업화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력의 동원이 빠르게 이루어졌다.⁷⁾ 그리고 때때로 출산율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여성의 가정적 역할이 강조되긴 했어도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과 더불어 동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여성이 전문직종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소련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의하면 1970년대 초반 의사의 72%, 변호사의 35%, 판사의 47%,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의 90%, 학위를 지닌 농업전문가의 58%, 회계사·통계사의 76%, 전체 과학자의 38%, 엔지니어의 33%가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Sanderson, 1995). 이러한 수치는 북미나 서유럽 국가들과 견주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성의 이렇듯 활발한 전문직종으로의 진출은 소련 이외의 다른 동구 국가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6) 헝가리의 경우를 보면 1949년 이후 노동인구의 확장은 주로 여성노동인구에 의한 것이었다. 이미 1949년에 이르러 15-59세의 남성이 91%라고 하는 높은 고용율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산업화를 위해서는 노동인력을 주로 여성으로부터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5-54세 여성의 고용율이 1949년 35%에서 1984년에는 74%에 이르렀다. Szalai(1991) 참조.

7)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는 사회주의 건설과 가족의 향상된 복지를 위해 여성의 사회적 노동을 강조하는 다양한 선전술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가족의 경우 남편 혼자서의 수입으로는 생활하기 힘들게 만드는 임금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공유산술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인구정책도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데 일조하였다 (Wolchik, 1995).

<표 3>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교육과 직업에 따른 남녀 임금격차, 1988년 6월 (단위: koruna)

교육 / 성	직업분류					전체
	육체노동	서비스	기술직	행정/경영	기타(비육체)	
전체						
남성	3786	3169	4236	4688	4368	3917
여성	2571	2506	2993	3052	3307	2778
(여/남, %)	(67.9)	(79.1)	(70.7)	(65.1)	(75.7)	(70.9)
초등 의무교육						
남성	3542	2913	4028	3544	3053	3476
여성	2539	2289	2708	2809	2491	2509
(여/남, %)	(71.7)	(78.6)	(67.2)	(79.3)	(81.6)	(72.2)
직업교육						
남성	3877	3294	4124	3874	3556	3847
여성	2645	2617	2830	2891	2464	2666
(여/남, %)	(68.2)	(79.4)	(68.6)	(74.6)	(69.3)	(69.3)
2차고등교육						
남성	3773	3301	4135	4171	3786	3987
여성	2592	2683	2953	2995	2953	2911
(여/남, %)	(68.7)	(81.3)	(71.4)	(71.8)	(78.0)	(73.0)
대학교육						
남성	3560	3342	3569	5421	4533	4735
여성	2479	2929	3623	3941	3860	3835
(여/남, %)	(69.6)	(87.6)	(79.3)	(72.7)	(85.2)	(81.0)

자료: Paukert (1991: 626).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또한 전문직종으로의 여성의 진출이 많다고는 해도 동유럽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녀평등이 잘 실현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여성이 다양한 직종에 광범위하게 진출하기는 했어도 남성노동과 여성노동 사이에는 여전히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분절 현상이 존재하여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대체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도소매,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중공업부문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은 현저하게 적었다.⁸⁾ 또한 여성은 동일직종의 위계서열에서도 남성들에 비해 낮은 위치를 점

8) Watson(1993), Connor(1979) 참조.

하였는데, 조직의 의사결정에서 핵심적인 직책은 주로 남성들이 점하였고 여성이 그러한 위치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⁹⁾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폴란드의 경우 국가기업 경영자층의 20%, 동독의 경우에는 30%가 여성이었으나 이들 여성들은 최고경영자층이 아닌 중간경영자가 대부분이었고 또한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공장이나 사무실의 경우에도 관리층은 주로 남성들이었다. 그리고 소련의 경우 교육분야 종사자 가운데 75% 가량이 여성이었으나 단지 1/3 정도만이 학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deSilva, 1993: 308). 이와 함께 동유럽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전문직종의 경우도 서유럽과는 달리 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제적 보상이 다른 직종에 비해 별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직종 내의 위계서열 상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Rosenthal, 1975: 444-446).

동유럽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남녀 사이의 이러한 수직적 수평적 분절은 임금수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공산체제가 붕괴되기 이전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남녀 임금격차를 취급한 통계를 보면 대략적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20-30%정도 낮은 수준이었다. <표 3>은 198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남녀 임금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분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에 비해 약 30% 정도 낮았다. 또한 <표 4>는 헝가리에서의 남녀 임금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체코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경제부문에서 기술직과 사무직을 불문하고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사무직의 경우 기술직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이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4> 헝가리 사회주의부문에서의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 1989 (%)

경제 부문	기술직 여성	사무직 여성
산 업	64.5	52.1
건 설	65.2	55.6
농 업	67.7	54.8
운 송	69.5	56.7
유 통	76.2	66.8
서비스	75.8	64.2

자료: Employment and Earnings, 1989 (Budapest: CSO, 1990); Szalai(1991: 160)에서 재인용.

9) 과거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남녀 불평등에 관한 논의로는 deSilva(1993), Jancar(1978), Scott(1974), Connor(1979), Rosenthal(1975), Heitlinger(1979), Watson(1993), Nesporova(1993), Wolchik(1981), Einhorn(1993), Rueschemeyer(1994), Fong and Paul(1993), Paukert(1993), Schaffer(1981), Beleva, et al.(1993) 등을 참조.

요약하면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여성해방과 평등이념을 강조함으로써 공산화되기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상당히 향상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남녀평등이 구현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과거 동유럽의 공산정부가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과제 가운데 정치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녀평등 실현 그 자체가 정책의 우선과제로 등장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여성정책의 주안점은 주로 각국이 처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직업선택에서의 전통적 남녀구분이라는 관습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여성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은 낮았던 것이다. 나아가 가사에서의 전통적 남녀 역할 구분도 그대로 유지되어 많은 여성들이 가사와 사회활동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이중 부담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III. 체코의 경제개혁과 노동시장 상황의 전반적 변화

개혁이 시작되기 이전 체코슬로바키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가장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던 동유럽 국가 중의 하나였다. 우선 체코슬로바키아는 동독과 마찬가지로 공산화되기 이전부터 산업화의 수준이나 노동력의 기술수준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았던 관계로 공산화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된 산업화를 위한 기반이 다른 동유럽 인접 국가들에 비해 튼튼하였고, 그에 따라 1960년대말까지 순조롭게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정부는 공산화 이후 철저하게 국유화를 단행하였고 사적경제활동도 엄격하게 통제하여 계획과 명령의 경제원리를 강력하게 작동시켰다. 그에 따라 농업부문의 국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폴란드나 2차경제가 활성화되었던 헝가리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사적경제부분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재정적자나 외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던 모범적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이러한 경제적 안정의 기초는 1980년대말 개혁이 시작될 때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하지만 체코슬로바키아가 동구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경제발전 수준이 높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는 해도 서구의 선진경제들과 비교하면 기술수준이나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1968년 자유화운동과 그에 대한 소련의 탄압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경제운용이 경직화됨으로써 세계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 결과 체코슬로바키아는 1970년대말 이후 산업생산 성장율과 국민소득 성장율이 모두 3% 미만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경제의 중추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동안 유지하였던 공산체제를 포기하게 되었다.¹⁰⁾

공산체제 붕괴 후 새롭게 구성된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1990년 9월 의회의 승인을 토대로 1991년 1월부터 시장경제를 향한 급진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1992년 1월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국가로 분리되었다. 경제개혁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는 기업활동의 자유화, 가격자유화, 임금자유화, 무역자유화 등을 포함하는 경제활동의 자유화, 국가기업의 사유화, 예산제약의 경성화, 시장원리의 작동을 위한 하부구조의 창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국가역할 축소, 그리고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불안정의 폭과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혁을 시도한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추진한 정책이었지만, 체코는 폴란드나 헝가리와 더불어 이러한 개혁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러한 개혁의 추진으로 체코의 노동시장 상황은 크게 변화되었는데, 우선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사적경제부분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개혁이 시작되기 이전인 1985년 체코 전체의 노동인구 가운데 사적경제부분에 종사하는 노동인구는 불과 0.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대다수의 노동인구는 국가부문 내지는 협동조합과 같은 준국가부분에 종사하였는데, 경제개혁이 막 시작된 1990년에는 사적경제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인구가 무려 7.0%로 증가하였고 1993년에 이르러서는 그 비율이 47.1%로 오히려 국가부문을 능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그 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서 1995년에는 사적경제부분에 종사하는 노동인구가 전체노동인구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57.2%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국가부문과 협동조합부분에 종사하는 노동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국가부문의 경우 1985년 85.5%에서 1995년 24.5%로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고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1985년 12.9%에서 1995년에는 4.2%라는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체코의 경제개혁과정에서 등장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실업의 증가이다. 과거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상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현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체코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노동력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로서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국가로부터 할당받는 단위기업들은 가능하면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펼쳤고 여기서 노동에 대한 과잉수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국가기업들이 과잉고용을 이룬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은 자주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동구 사회주의 '부족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가 이룬 높은 고용율은 효율적 경제운용으로 달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경영의 경제적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의 희생 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0) Major(1991) 참조.

<표 5> 체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영형태별 노동인구 분포 추이, 1985-1995(단위: 천명) (%)

경영형태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국가부문	4,529 (85.5)	4,289 (79.6)	3,449 (70.5)	2,869 (60.2)	1,916 (40.2)	1,722 (35.8)	1,209 (24.5)
협동조합	685 (12.9)	662 (12.3)	470 (9.6)	357 (7.5)	273 (5.7)	230 (4.8)	208 (4.2)
협회/정당/교회	67 (1.3)	60 (1.1)	37 (0.8)	41 (0.9)	28 (0.6)	25 (0.5)	33 (0.7)
혼합부문	-	-	17 (0.3)	15 (0.3)	306 (6.4)	282 (5.9)	665 (13.4)
사적경제부문 ¹⁾	14 (0.3)	376 (7.0)	917 (18.8)	1,483 (31.1)	2,250 (47.1)	2,548 (53.0)	2,824 (57.2)
합 계	5,295 (100.0)	5,387 (100.0)	4,889 (100.0)	4,766 (100.0)	4,774 (100.0)	4,807 (100.0)	4,940 (100.0)

자료: Statistical Yearbook of the Czech Republic, 1996, p.261

註: 1) 외국의 민간기업 및 합작투자회사 포함.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변모시키기 위해 국가기업에 대한 예산제약의 경성화 정책이나 국가기업의 사유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실업은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기업에 대한 예산제약의 점진적인 경성화로 장기간 적자를 탈피하지 못하는 기업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 속에서 대다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과잉으로 고용된 노동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국가기업의 사유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유화된 기업의 새로운 소유주나 경영자들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을 높이기 위해 상당수의 불필요한 노동력을 해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개혁정책의 추진으로 인한 실업증가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국가기업 안으로 흡수되었던 잠재적 실업상태가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그런데 실업과 관련하여 체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두 자리수의 높은 실업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체코는 5% 이내의 비교적 낮은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94년 1사분기의 경우 동유럽에서의 실업율이 폴란드 15.7%, 헝가리 12.2%, 슬로바키아 14.5%, 루마니아 11.4%, 불가리아 16.3%로 높은 반면에 체코에서의 실업율은 불과 3.3%에 머무르는 정도였다 (Crane, 1995: 38). 또한 체코는 실업율과 함께 인플레이 수치도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났었는데, 이는 체코의 경제가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왜곡상태가 덜 심각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IV. 체코 개혁과정에서의 여성노동

1. 취업구조 변화

1995년 체코 여성의 취업구조를 보면, 전체 여성노동인구의 26.2%가 제조업에 종사함으로써 제조업 부문에 체코 여성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참조). 다음으로는 유통업 부문에 여성들이 많이 종사해서 전체 여성노동인구의 18.6%가 이 분야에 분포되어 있고, 교육부문은 11.4%를 기록함으로써 세번째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부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9.0%, 부동산업 7.4%, 수송/전신 5.3%, 농림어업 5.4%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6> 체코의 산업별 여성노동인구 분포 추이, 1993-1995

산업 분야	1993			1994			1995		
	F ¹⁾	%F ²⁾	D ³⁾	F	%F	D	F	%F	D
제조업	587	39.9	27.7	577	40.2	27.0	576	40.1	26.2
유통업	359	58.6	17.0	368	57.0	17.3	408	56.7	18.6
교육	240	74.5	11.4	240	74.1	11.3	240	73.8	10.9
사회복지	203	77.8	9.6	199	76.4	9.3	199	76.1	9.0
부동산업	132	43.3	6.2	138	43.1	6.5	162	42.9	7.4
수송/전신	121	33.8	5.7	119	33.1	5.6	116	32.7	5.3
농림어업	116	35.9	5.4	115	36.0	5.4	106	35.9	4.8
공공행정	84	59.8	4.0	89	59.6	4.2	99	59.4	4.5
숙식업	64	56.1	3.0	73	55.5	3.4	78	55.2	3.5
금융업	50	71.9	2.4	56	70.3	2.6	59	70.0	2.7
건설업	52	11.7	2.5	50	11.7	2.3	50	11.6	2.3
공공설비	24	27.1	1.1	25	27.2	1.2	24	27.1	1.1
광업	17	16.4	0.8	17	17.2	0.8	15	17.1	0.7
기타	67	43.1	3.1	67	42.3	3.1	67	42.0	3.0
합 계	2116	44.3	100.0	2133	44.4	100.0	2199	44.5	100.0

자료: Statistical Yearbook of the Czech Republic, 1995 and 1996

註: 1) 여성노동인구 (단위: 천명)

2) 분야별 여성노동인구비 (%)

3) 전체 여성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해당분야 여성노동인구 (%)

여성의 취업분포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몇몇 부문의 경우 여성 노동 인력이 전체 노동인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부문의 경우 1995년 전체인력의 76.1%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여성인력의 비중이 가장 큰 분야로 나타나고 있고, 교육 부문은 여성의 비중이 73.8%, 금융업 부문은 여성의 비중이 70.0%로 이 두 부문 모두 70% 이상의 높은 여성인력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참조). 또한 전체노동력에서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공공행정, 유통업, 숙박업 등의 부문으로 여성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9.4%, 56.7%, 55.2%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여성의 진출이 상당히 적은 부문도 있는데, 예를 들어 건설업 부문은 전체노동인력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1.6%로 남성편향성이 가장 높은 부문이 되고 있고, 다음은 광업 부문으로 이 부문에서도 여성의 비중이 17.1%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설비 부문도 전체노동력 가운데 남성의 비중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나머지 수송/전신, 농림어업 부문의 경우에는 남성의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개혁을 진행중인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체코도 1990년 이후 국가 전체의 산업구조와 사회 각 부문의 조직체들이 빠르게 변모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이동이나 해고가 발생함으로써 경제부문별 여성인력의 분포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다시 <표 6>을 통해 체코 여성노동인구의 경제부문별 분포가 변화되는 추이를 살펴보면, 이 표에서 다루고 있는 기간이 비록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러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인구의 분포에 몇가지 일관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3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여성근로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3년 27.7%에서 1995년 26.2%로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 교육, 사회복지, 농어업, 수송/전신 분야에서도 여성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유통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여성근로자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 17.0%에서 1995년 18.6%로 1.6% 증가하였고 부동산업의 경우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3년 6.2%에서 1995년 7.4%로 1.2%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행정, 금융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별 여성 노동인구분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의 순위는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 금융업과 건설업의 순위가 바뀐 것 이외에는 바뀐 것이 없고, 1993년과 마찬가지로 1995년에도 제조업, 유통업, 교육,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 여성임금

체코의 통계청이 발간하는 통계연감에는 여성들이 받는 임금통계가 누락되어 있는 관계로 남녀간의 임금격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표 7>을 통해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의 임금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근접한 해답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7>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경제부문별 평균임금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¹¹⁾ 1995년의 경우를 놓고 볼 때,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제조업의 부문의 임금수준이 8,148 koruna로 전체 평균임금인 8,172 koruna에 비해 약간 적은 편이지만, 여성이 두 번째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부문인 유통업 부문의 평균임금은 7,201 koruna로 전체 평균임금의 88.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여성이 세 번째로 많이 진출해 있으면서 사회복지 부문 다음으로 여성인력의 비중이 큰 부문인 교육부문도 1995년 임금수준이 7,426 koruna로 평균임금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 부문 다음으로 여성이 많이 진출해 있으면서 여성인력 의존도가 가장 큰 부문인 사회복지 부문의 평균임금 수준도 7,529 koruna로 역시 전체 평균임금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표 7> 체코의 산업별 월평균 임금 추이, 1990-1995 (단위: koruna)

산업 분야	1990	1992	1993	1994	1995
제조업/광업	3,410	4,805	5,893	6,888	8,148
유통업	2,818	4,165	5,131	6,315	7,201
교육	2,894	4,206	5,249	6,325	7,426
사회복지	3,043	4,387	5,525	6,475	7,529
부동산업	3,179	4,585	6,032	7,404	8,896
수송/전신	3,438	4,602	5,672	6,807	8,241
농림어업	3,603	4,264	5,100	5,865	6,878
공공행정	3,299	5,324	6,914	8,321	9,608
숙식업	2,671	4,279	5,296	6,034	7,352
금융업	3,351	7,877	10,336	12,081	14,017
건설업	3,612	5,024	6,529	7,622	8,837
기타	2,543	3,950	5,023	5,806	6,720
전체평균	3,286	4,644	5,817	6,894	8,172

자료: Statistical Yearbook of the Czech Republic, 1996, p.266

11) 이 표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이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금수준의 향상이 실질임금의 증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동구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코에서도 인플레이가 발생하면서 실질임금의 상승은 명목임금이 상승하는 것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부문과 여성인력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서의 임금수준이 모두 낮다는 사실은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의 임금수준에 비해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시켜 주고 있다. 더욱이 각 해당부문에서도 남성의 임금수준이 여성의 임금수준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성과 여성간에는 여전히 상당한 임금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체코에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산체제가 붕괴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계속 유지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가용한 자료만 가지고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지는 밝힐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표 7>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금융업의 임금수준이 1990년 개혁이 시작되면서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1995년에 이르러서는 금융업 분야의 평균임금이 전체 평균임금보다 71.5%나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금융업 분야의 임금수준이 크게 상승한 것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경제적 역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임금수준도 동반하여 상승하였으리라 예측된다. 하지만 금융업의 경우 은행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일과 같은 말단 사무직원들과 경영자층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 점과 여성들이 주로 말단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경영자층은 대부분 남성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업 분야에서의 임금수준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여성근로자들이 남성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에서 누리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3. 여성실업

체코 실업율의 전반적 추이를 보면 1991년에 실업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실업율이 1990년 0.7%에서 1991년 4.1%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4.0% 미만의 낮은 실업율을 보이고 있다 (<표 8> 참조). 1992년에 비해 1993년도에 실업율이 약간 올랐을 뿐 1993년 이후로 계속 하락하여 1995년도에는 실업율이 불과 3.0%에도 못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실업의 양상은 여성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 실업자수는 1993년에 10만명을 넘었지만 이 해를 고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도 실업자의 증감 추세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점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실업자의 증감추이 면에서는 남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업자 가운데서 여성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실업자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92년 여성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57.8%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남성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42.2%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격차는 1995년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보면 적어도 실업자수로 따질 때 개혁과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 체코의 경제활동참여인구 및 실업인구 변화, 1990-1995 (단위: 천명)

연 도	T ¹⁾	U ²⁾	U/T ³⁾	U(M) ⁴⁾	U(F) ⁵⁾	U(F)/U ⁶⁾
1990	5,436	39	0.7	NA	NA	
1991	5,375	222	4.1	NA	NA	
1992	5,170	135	2.6	57	78	57.8
1993	5,194	185	3.5	81	104	56.2
1994	5,137	166	3.2	69	97	58.4
1995	5,176	153	2.9	65	88	57.5

자료: Statistical Yearbook of the Czech Republic, 1995(pp.235-236) and 1996(pp.266-267)

註: 1) 경제활동참여인구; 2) 전체실업자수; 3) 전체 실업율 (%); 4) 남성실업자수; 5) 여성실업자수;

6) 전체 실업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실업인구 (%)

또한 실업과 관련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실업자가 배출되는 직업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 9>는 1995년말 실업자 가운데 직장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을 뽑아 실직할 당시에 가졌던 직업의 직종에 따라 실업자를 구분한 것인데, 이 표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초보직에 종사하다가 실직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판매직에 종사하다가 실직한 사람들이 전체 여성실직자의 23.7%를 차지함으로써 주로 단순노동직에서 여성 실업자가 대량으로 배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매직 다음으로는 준전문직/기술직, 사무직, 기계조작/조립직 순으로 여성실업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특히 판매직, 준전문직/기술직, 사무직 등의 세 부문에서는 여성실업자가 남성실업자에 비해 숫적으로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남성들의 경우에는 기능직과 기계조작/조립직에 종사하다가 실직한 사람들이 전체 남성실직자의 각각 33.5%, 15.7%를 차지하여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들 부문에서의 실업자는 수적으로나 전체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여성의 실업기간이 남성의 실업기간에 비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10>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실업자를 실업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이 표에 따르면 여성실업자 가운데 3개월 미만의 단기실업자의 비중은 전체 여성실업율에 비해 낮는데 비해 3개월 이상의 실업여성의 비중은 전체 여성실업율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년 이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여성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1993년에는 58.6%로 전체 여성실업율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았지만 1994년과 1995년에 그 수치가 계속 증가하여 1995년에는 61.3%에 이르러 장기실업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여성실업자들이 남성실업자들에 비해 실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실업을 당할 경우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남성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혁기간 중 발생하는 실업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 체코 실직자의 소속 직종에 따른 분포, 1995년 12월-1996년 2월

직종 분류 ¹⁾	U(F) ²⁾	D(F) ³⁾	U(M) ⁴⁾	D(M) ⁵⁾	U(T) ⁶⁾	D(T) ⁷⁾
초보직	19.7	27.5	20.1	29.9	39.8	28.6
점원/판매원	17.0	23.7	6.0	9.0	23.0	16.6
준전문직/기술직	7.7	10.7	2.3	3.5	10.0	7.2
사무직	7.6	10.6	0.8	1.1	8.3	6.0
기계조작/조립직	7.3	10.2	10.6	15.7	17.9	12.9
기능직	6.5	9.1	22.6	33.5	29.1	21.0
전문직	2.5	3.6	1.6	2.3	4.1	3.0
입법/법률	1.6	2.2	2.0	2.9	3.6	2.6
농림기술직	1.9	2.7	1.4	2.1	3.3	2.4
합 계	71.6	100.0	67.3	100.0	138.8	100.0

자료: Statistical Yearbook of the Czech Republic, 1996, p.277

註: 1) KZAM(ISCO-88)에 따른 직종분류

2) U(F) = 여성실직자수 (단위: 천명)

3) D(F) = 전체 여성실직자에서 차지하는 해당직종의 여성실직자 비율 (%)

4) U(M) = 남성실직자수 (단위: 천명)

5) D(M) = 전체 남성실직자에서 차지하는 해당직종의 남성실직자 비율 (%)

6) U(T) = 전체 실직자수 (단위: 천명)

7) D(T) = 전체 실직자에서 차지하는 해당직종의 실직자수 (%)

<표 10> 체코의 실업기간에 따른 여성 실업추이, 1993-1995 (매년말) (단위: 천명)

실업 기간	1993			1994			1995		
	전체	여성	%여성	전체	여성	%여성	전체	여성	%여성
3개월 미만	85.8	42.2	49.2	67.3	34.8	51.7	59.7	29.8	49.9
3 - 6개월	42.7	26.6	62.3	37.0	23.2	62.7	32.9	20.4	62.0
6 - 9개월	17.6	11.1	63.1	16.5	10.8	65.5	14.5	9.4	64.8
9 - 12개월	11.9	7.6	63.9	11.0	7.1	64.5	9.8	6.3	64.3
1년 이상	27.3	16.0	58.6	34.7	20.7	59.7	36.2	22.2	61.3

자료: Statistical Yearbook of the Czech Republic, 1996, p.267.

V. 맺음말

지금까지 본 논문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의 여성노동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고 체코에서 개혁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여성노동의 변화에 관해 취업구조, 임금 및 실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취업구조면에서는 짧은 관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여성노동력이 부문간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이동은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과정의 초기에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이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력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개혁 과정에서 활성화된 유통업에 종사하는 여성인구는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 바로 그 구체적인 예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취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코에서는 과거 공산체제가 붕괴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남녀간의 수직적 수평적 노동분절 현상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여러 직업부문에서의 남녀 노동력의 편향적 분포가 별로 변화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코의 경우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남녀의 임금격차를 정확히 비교할 수 없어도 경제개혁 이후 정부의 임금자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직업부문의 평균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을 볼 때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간접적이거나 감지할 수 있었다.

실업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체코의 전반적 실업수준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여성 실업자수도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적기는 하지만 체코의 남성 실업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 실업자들의 경우 남성 실업자들에 비해 장기간 실업상태에 처하는 확률이 시간이 경과될수록 더욱 증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개혁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도 여성 노동력이 임금이 낮은 직업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여성의 실업율이 남성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직업을 구할 수 있는 확률도 남성에 비해 낮다고 하는 사실은 공산체제가 붕괴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Beleva, Iskra, Daniela Bobeva, Silvia Dilova and Asen Mitchkovski. 1993. "Bulgaria: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Implications." In *Structural Chang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Implications*, edited by Georg Fischer and Guy Standing. Paris: OECD.

- Connor, Walter D. 1979. *Socialism, Politics and Equal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Einhorn, Barbara. 1993. *Cinderella Goes to Market: Citizenship, Gender and Women's Movements in East Central Europe*. New York: Verso.
- Fong, Monica and Gillian Paull. 1993. "Women's Economic Status in the Restructuring of Eastern Europe." pp. 217-247 in *Democratic Reform and the Position of Women in Transitional Economies*, edited by Valerie M. Moghad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einen, Jacqueline. 1994. "The Reintegration into Work of Unemployed Women: Issues and Policies." pp. 311-333 in *Unemployment in Transition Countries: Transient or Persistent?* Paris: Center for Cooperation with the Economies in Transition, OECD.
- Heitlinger, Alena. 1979. *Women and State Socialism: Sex Inequality in the Soviet Union and Czechoslovakia*.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Hubner, Maier, and Rudolph. 1993. "Women's Employ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Status and Prospects." pp. 213-240 in *Structural Chang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Implications*, edited by Georg Fischer and Guy Standing. Paris: OECD.
- Jancar, Barbara W. 1978. *Women under Communism*.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ajor, Ivan. 1991. "Why the Communist Economies Collapsed?" Manuscript.
- Nesporova, Alena. 1993.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Labour Market Trends and Policies." In *Structural Chang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Implications*, edited by Georg Fischer and Guy Standing. Paris: OECD.
- Paukert, Liba. 1993. "The Changing Economic Status of Women in the Period of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System: The Case of the Czech and Slovak Republics after 1989." pp. 248-279 in *Democratic Reform and the Position of Women in Transitional Economies*, edited by Valerie M. Moghad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nthal, Bernice Glatzer. 1975. "The Role and Status of Women in the Soviet Union: 1917 to the Present." In *Women Cross-Culturally*, edited by Ruby Rohrlich-Leavitt. The Hague: Mouton.
- Rudolph, Hedwig. 1992. "Women's Labor Market Experience in the Two Germanies." pp. 169-186 in *Women's Work and Women's Lives: The Continuing Struggle Worldwide*, edited by Hilda Kahne and Janet Giele. Boulder: Westview Press.
- Rueschemeyer, Marilyn. 1994. "Women in the Politics of Eastern Germany: Dilemmas of Unification." In *Women in the Politics of Postcommunist Eastern Europe*. Armonk:

- M.E. Sharpe.
- Sanderson, Stephen K. 1995. *Macrosociology: An Introduction to Human Societies*. New York: HarperCollins College Publishers.
- Schaffer, Harry G. 1981. *Women in the Two Germanies: A Comparative Study of a Socialist and Non-Socialist Society*. New York: Pergamon Press.
- Scott, Hilda. 1974. *Does Socialism Liberate Women?* Boston: Beacon Press.
- deSilva, Lalith. 1993. "Women's Emancipation under Communism: A Re-evaluation." *East European Quarterly* 27:301-315.
- Szalai, Julia. 1991. "Some Aspects of the Changing Situation of Women in Hungary." *Signs* 17:152-170.
- Watson, Peggy. 1993. "The Rise of Masculinism in Eastern Europe." *New Left Review* 197:71-82.
- Wolchik, Sharon. 1995. "Gender Issues During Transition." pp. 147-170 in *East-Central European Economies in Transition*, edited by John P. Hardt and Richard F. Kaufman. M.E. Sharp.
- _____. 1992. "Women and Work i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Women's Work and Women's Lives: The Continuing Struggle Worldwide*, edited by Hilda Kahne and Janet Giele. Boulder: Westview Press.
- _____. 1981. "Ideology and Equality: The Status of Women in Eastern and We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3:445-476.
- Wolchik, Sharon L. and Alfred G. Meyer, eds. 1985. *Women, State and Party in Eastern Europ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WOMEN'S LABOR DURING THE POST-SOCIALIST REFORM IN CENTRAL-EASTERN EUROPE: THE CASE OF CZECH WOMEN

Seung-Kwon Chin

Department of Soci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several aspects of the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field of female labor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post-socialist transition in the Czech

Republic.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female labor among economic sectors and changes in women's income level and unemployment rate are the main aspects that this study deals with.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990s there occurred some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female labor among economic sectors, mainly due to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Czech economy. Despite this fact, both the horizontal and vertical job segregation and in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that existed in the communist period was maintained up until the mid-1990s. Female workers were still concentrated in the economic sectors of low income. In addition, 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process goes on, female workers become more vulnerable to unemployment than male workers.